


| | | | | |
|---|-------|--|--------------------|--|
|  인천광역시 | | 보 도 자 료 | |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
| 배포일자 | | 2023년 4월 20일(목) 총 8매 | | |
| 담당 부서 | 산업입지과 | 담당 자 | • 스마트산단팀장 • 담당자 | 최덕중 ☎440-4286 도경재 ☎440-4287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천시, 부평·주안산단 거점으로 혁신 산업단지 건인

- 산업단지 대전환을 위한 정부지원 대상지역 공모 선정 -
- 산단 혁신해 제조업 경쟁력강화, 일자리 창출 등 기대 -

인천시가 부평·주안산단을 혁신 거점으로, 지역산단의 혁신을 이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선정 공모에 인천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까지 3년간으로, 시는 총사업비 3,250억 원 규모의 27세 세부사업을 계획했는데 대상사업 및 사업비는 정부부처 검토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정부가 국가 제조업의 주요거점으로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의 혁신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입지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제시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발전 거점 혁신

계획’을 서면·현장·발표심사 평가해, 2024년 사업대상지로 인천을 최종 선정했다.

그간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의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이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근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가동률 및 고용여력 하락, 입주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산단 혁신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시는 이번 공모에 ‘인천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발전 거점 혁신계획’을 제안했다.

시는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적·역동적 산업공간 대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부평·주안 산단을 거점으로 인천 기계산단, 인천지방산단, 뷰티폴파크 산단과 연계하여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그중 거점산단인 부평·주안 산단은 산자부가 주관하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도 지정돼 디지털화·에너지 자립화·친환경화를 통한 산단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추진전략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 구축, ▲기업성장 사다리 생태계 조성, ▲탄소저감 그린에너지 선도 산단 구현, ▲찾고 머물고 싶은 사람중심 공간 전환 등 4개 전략, 27개 세부 추진사업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적용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가속화를 통한 제조기술 고도

화 방안 △기존 전통제조업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상호 연계한 지역 혁신형 산업벨트 구축으로 거점산단과 연계산단의 상생형 연계 발전 방안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산단 통합관계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서비스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인스로드 등 산단 환경개선 사업, 산단 구조고도화 추진 등 그간의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인천 남동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과 남동·부평·주안 산단의 재생사업, 산단을 보고·즐기고·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단 공간활성화 마스터플랜인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와 함께 진행해 산단 경쟁력 강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창업과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단을 혁신적 역동적 공간으로 대전환하고 고용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붙임 1.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발전 거점 혁신계획
2.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인천광역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발전 거점 혁신계획

인천광역시



I. 지역 경제산업 진단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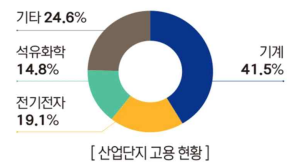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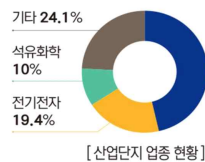
산업단지 현황

- 총 15개 산업단지 국가산단 3개, 일반산단 11개, 도시첨단산단 1개
- 산업단지 대부분 도심 위치, 노후산단 비중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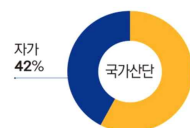
- 인천 전체 제조기업 33,574개의 39.2%인 13,167개사 입주생산·수출·고용의 65.76%, 23.43%, 61.1%를 차지

- [산단 입주기업] 기계, 전기전자 비중이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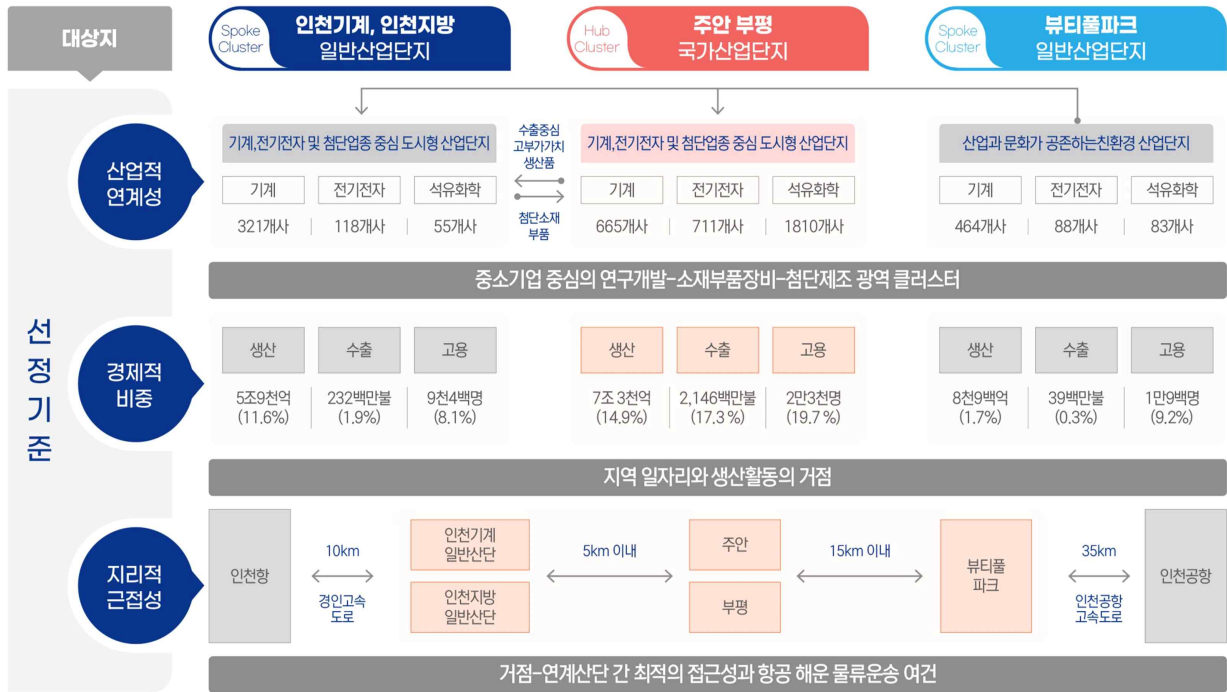
- (노후 산단) 준공 후 20년 이상 총 7개소 (전체 산단 46%) (국가산업단지 3개소, 일반산업단지 4개소)

- 산단 입주기업 임대 비중 : 국가산단 입주기업 영세





거점-연계산업 선정



인천광역시_산업단지 중심의 지역발전 거점 혁신계획

11



산업단지 연계발전방안

인 천 주안부평-인천기계·지방산업-부티폴파크(검단)를 산업생태계, 공간, 데이터 관점에서 연결하여 상생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데이터 주도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인천광역시_산업단지 중심의 지역발전 거점 혁신계획

20



비전 목표 추진전략

비전

“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적·역동적 산업공간 대전환 ”

목표

| 산업단지 생산액 | 산업단지 일자리 | 온실가스 감축량 | 기업 근로자 만족도 |
|---------------|-----------|------------|------------|
| 1조 4,000억원 Up | 8,000개 창출 | 30만 ton 감축 | 85점 이상 |

추진전략

주요
이행과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 구축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표준제조 공정 모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디지털 가속화 생태계 조성

통합관제센터
제조메타버스 산단지원
스마트 물류플랫폼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기업성장 사다리 생태계 조성

사업화·사업재편 역량 강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지역선도 산단 연계협력(R&D)

청년 창업·벤처 거점 조성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탄소저감 그린에너지 선도산단

탄소저감 공정 전환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확산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산단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확산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

찾고 머물고 싶은 사람중심의 공간전환

고용 친화 공간 탈바꿈
산단 재생사업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브랜드 산단 촉진사업
아름다운 공장 조성 지원

근로환경 개선

스마트가든볼 설치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 구축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표준제조 공정 모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디지털 가속화 생태계 조성

통합관제센터
제조메타버스 산단지원
스마트 물류플랫폼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기업성장 사다리 생태계 조성

사업화·사업재편 역량 강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지역선도산단 연계협력(R&D)

청년 창업·벤처 거점 조성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탄소저감, 그린에너지 선도 산단 구축

탄소저감 공정 전환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확산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산단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탄소저감 전문인력 양성

그린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확산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

찾고 머물고 싶은 사람중심의 공간전환

고용 친화 공간 탈바꿈

산단 재생사업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브랜드산단 촉진사업
아름다운 공장 조성 지원

근로환경 개선

스마트가든볼 설치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 Catchphrase

'낮에는 비즈니스공간, 밤에는 산업문화공간으로'

업무시간에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사용되고 업무시간이 끝난 밤에는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공간

● 산업문화공간 3대 목표

산업문화 활동을 위한 장소 명소화

근로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참여와 경험을 통한 매력적인 장소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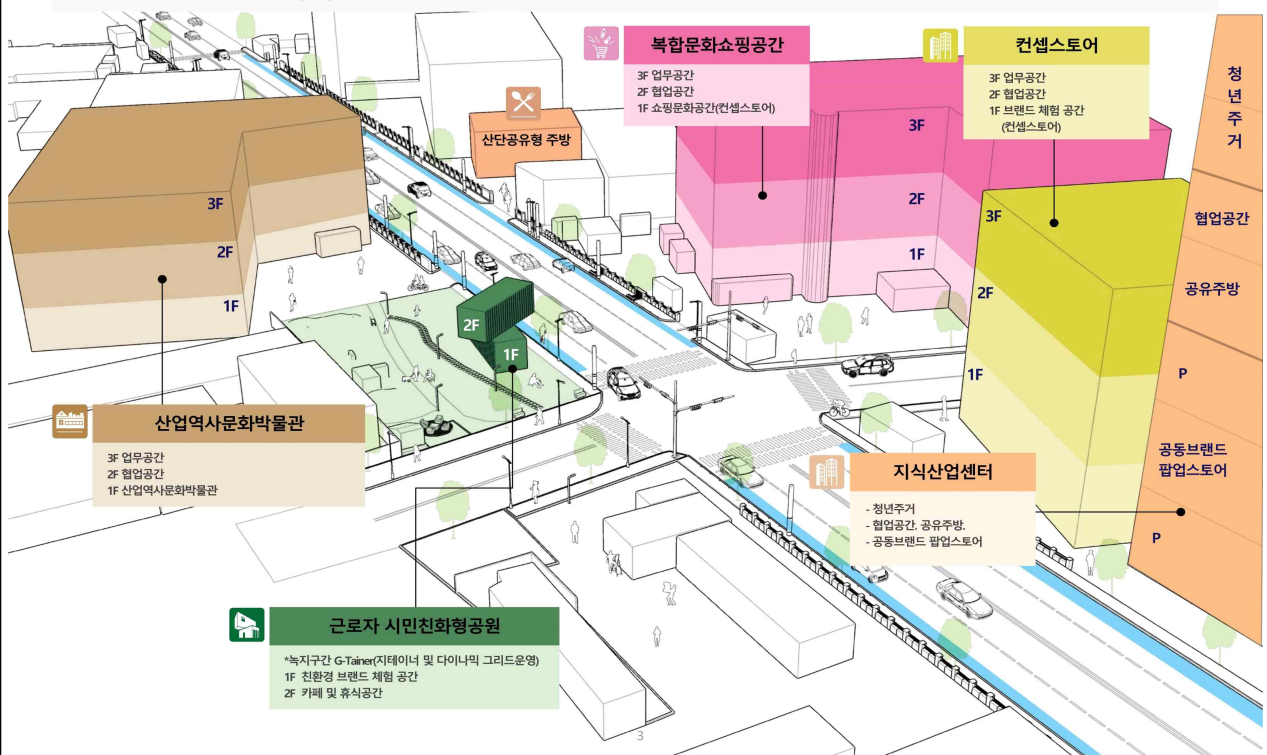
근로자와 시민의 대안공간의 역할

산업 · 건축 · 비디오 · 춤 · 영화 · 시를
포함한 폭넓은 예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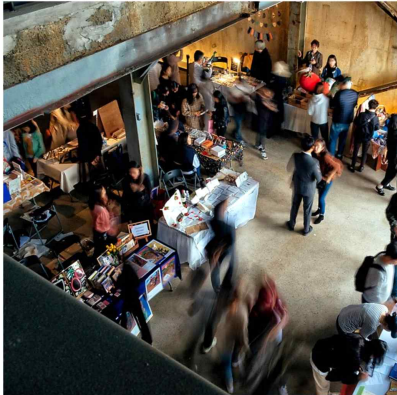
산업문화활동의 흔적을 통한 문화활동장소로 이미지 변화

산업문화활동을 통한
노후산단 인식을 문화산단의 인식으로 변화

산업공간 개념구상도(안)



산업문화공간 활성화 요소 A



1. 산업거점

산단만의 산업,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복합문화공간 형성

- 산단의 기술적인 측면 등의 교육체험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산단 활성화
-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산단형 제형 휴식공간
- 산단 공동 브랜드 팝업스토어

산단 특장점을 고려한 문화요소부여



2. 보행친화공간

산단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구간을
사업을 통해 산단 내의 조화로운 보행공간 구축
" 시민이 체감하는 경관 조성 "

보행환경개선, 활력있는 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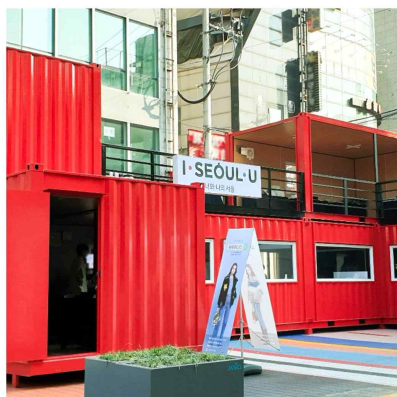
3. 브랜드컨셉스토어

공간 확장의 개념으로 산단 내 중소기업의
소비재 제품을 소개하는 체험형 브랜드 컨셉스토어

- 브랜드 체험과 구매를 통해 체험시간 증대
- 참여형 콘텐츠를 통한 브랜드 문화체험
- 예비창업자 콘텐츠 제품 공간 마련

산단 기업 브랜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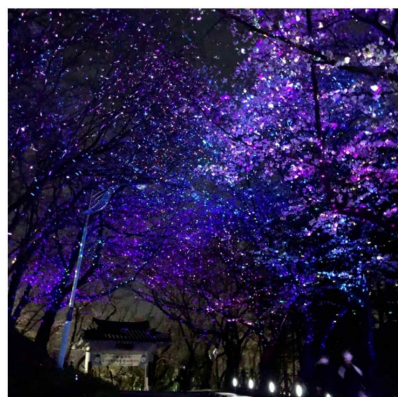
산업문화공간 활성화 요소 B



4. 공동브랜드 스토어

남동산업단지의 다양한 소비재 + 제조브랜드의
공동 브랜드 팝업스토어 활용을 통해
" 지역브랜드 및 신생브랜드의 가치 증대 "

신생브랜드 + 지역브랜드 시너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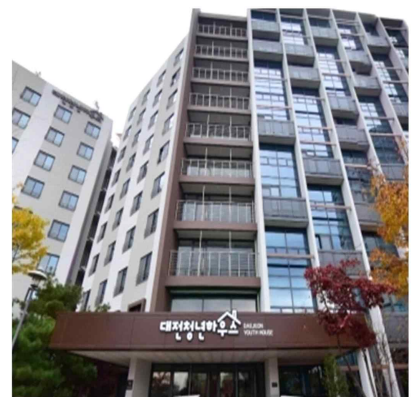


5. 생태문화체험

승기천 + 유수지의 자연친화공간 보유
남동산단 근로자 및 시민에게 생태문화체험 제공

- 승기천 산책로 및 실험 조성사업
- 승기천 보행교량 야간경관 사업
- 제1유수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자연 + 산업 + 문화의 조화



6. 정주환경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주환경 제공
지식산업센터 청년주거, 제2 유수지 정주환경 마련 등

" 사람이 사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산업단지 삶의 터전 마련